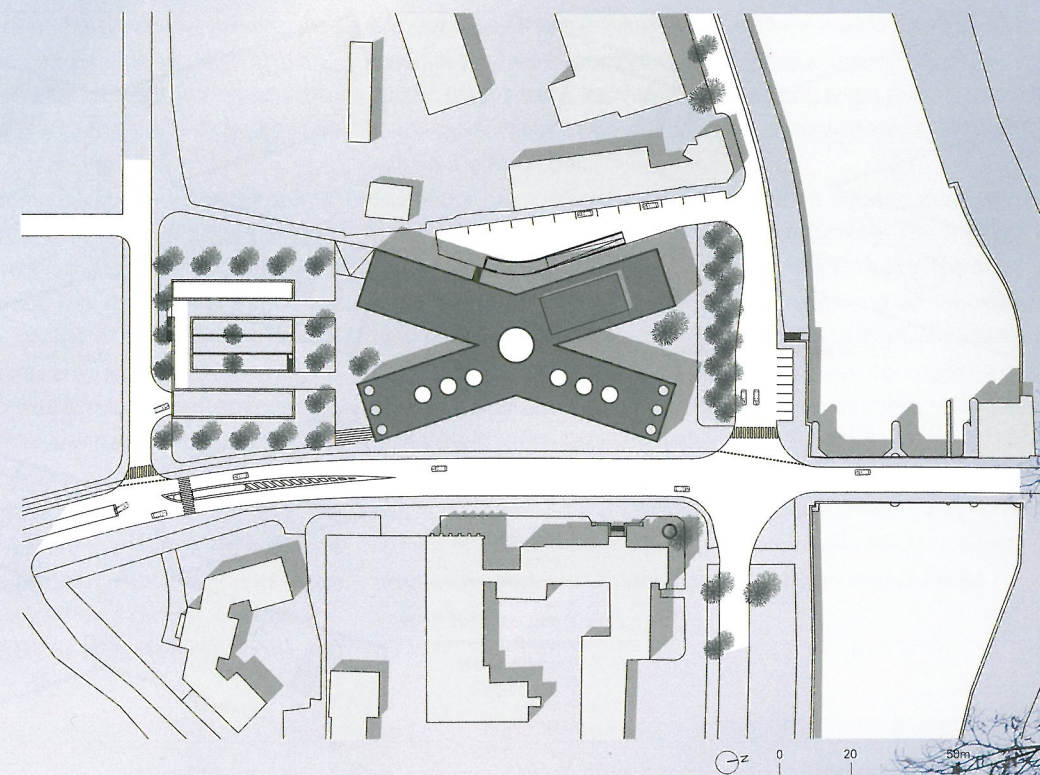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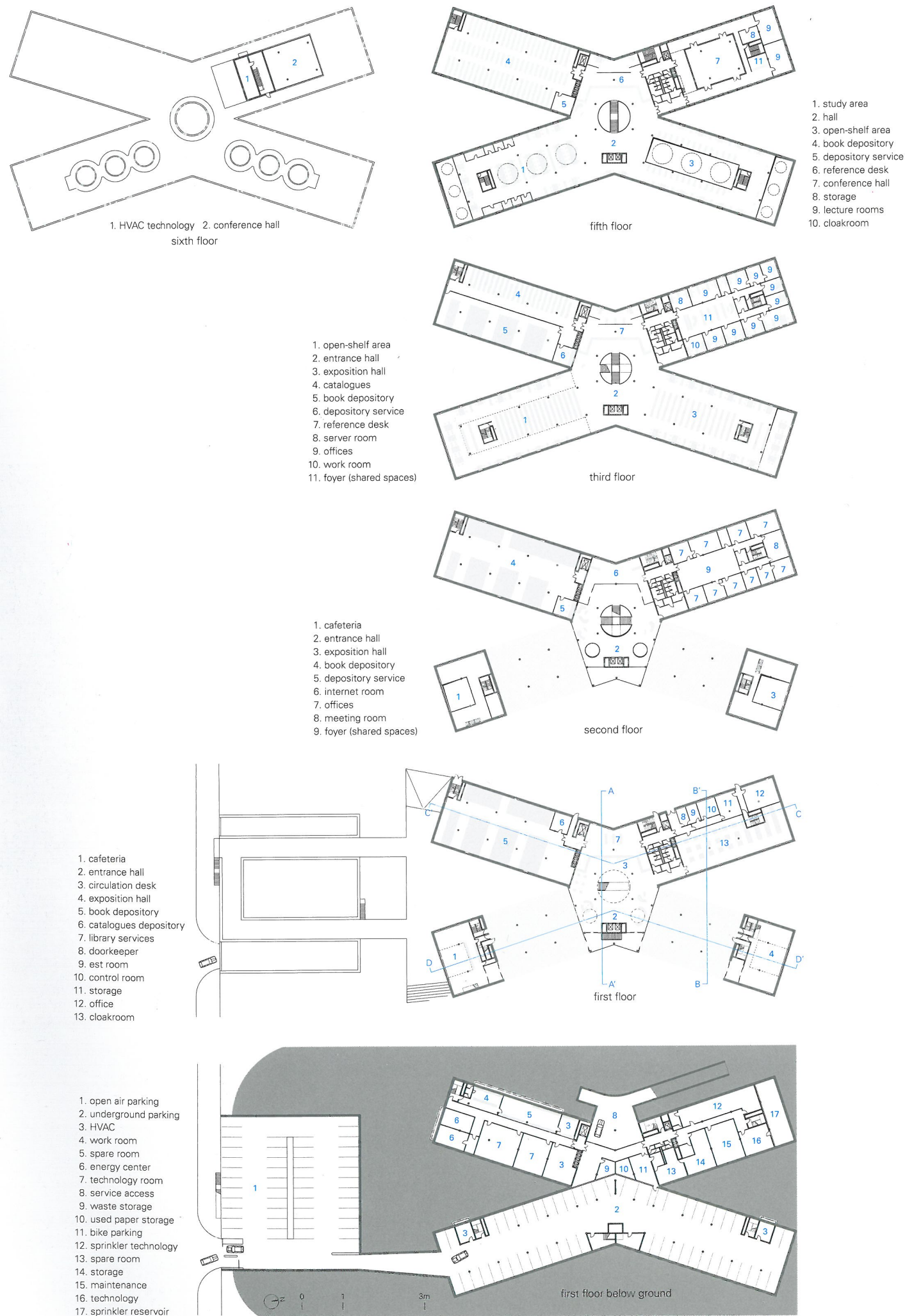


Hradec Králové Research Library

Projektil Architekti





Opened in September 2008, the new library was the winning proposal from an open architectural competition in 2002. It is situated on the banks of the Orlice River in the east Bohemian town of Hradec Králové, near the secondary school building designed by famous Czech architect Josef Gočár (1880-1960).

The formal expression of the building is a five-story high letter "X", cast in concrete. A concrete façade and structure underscore the monumental form of the "X" and the solidity of the monolith. The interior is also expressed in concrete. The library is cut through at grade level. One can walk through the building without entering the interior. The structure creates an open public urban space, which corresponds with the Projektil's ideas about openness in public buildings through thoughtful architectural design.

From the path, one can enter the library, the café (on the south side), and the exhibition hall (on the north side, by the river). The entry to the library hall is situated in the center of the X-shaped building. There, the main vertical communication elements (open stairways and elevator) are illuminated by a circular skylight. Visitors, librarians, and books begin at this central vertical point and

are distributed to the four wings of the X. Public spaces are located in the two eastern wings and occupy three floors. There are stacks, study rooms, individual study rooms, and a service counter. In the other wings, there are offices and storage and a conference hall on the fifth fl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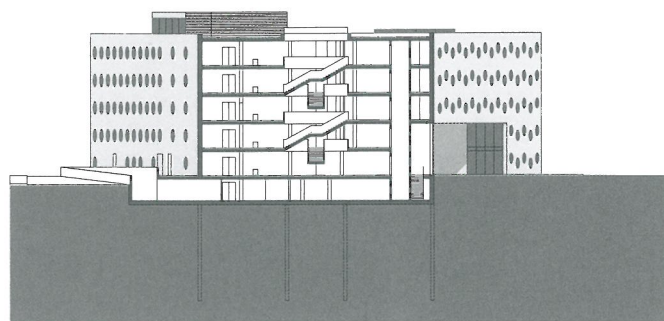
Each floor has a different color and colored flooring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fining the interior atmosphere. The architects invited artists and graphic designers to collaborate on the interior design, resulting in two large wall paintings and an innovative, new navigation and information system. The interior finishes are exposed concrete, colored linoleum floors, painted doors, white or maple acoustic panels, wooden tables and chairs, and galvanized sheet metal book shelves.

Energy conservation was a primary design consideration and significantly informed the overall design. For climate conditioning, radiant heating/cooling piping is embedded in the structure and filled with a variable temperature water/glycol liquid me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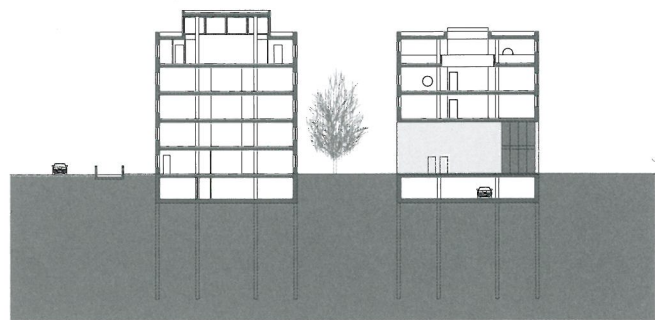
Projektil Architek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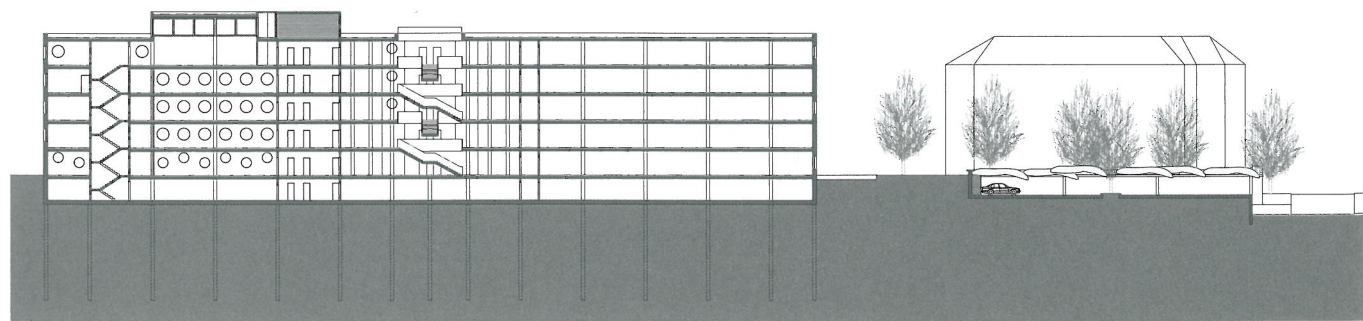
Project: Research Library in Hradec Králové, Czech Republic
 Architects: Roman Brychta, Adam Halíř, Ondřej Hofmeister, Petr Lešek
 Planning: Deltaplan s.r.o.
 Energy analysis: Jan Žemlička
 Graphic designer: Kultivar, Pixl-e
 Art work: Martina Novotná
 General contractor: VCES a.s.
 Client: The Research Library, The Ministry of Culture of Czech Republic
 Location: Hradec Králové, Czech Republic
 Gross floor area: 13,000m²
 Total enclosed volume: 57,300m³
 Design: 2002~2004
 Construction: 2004~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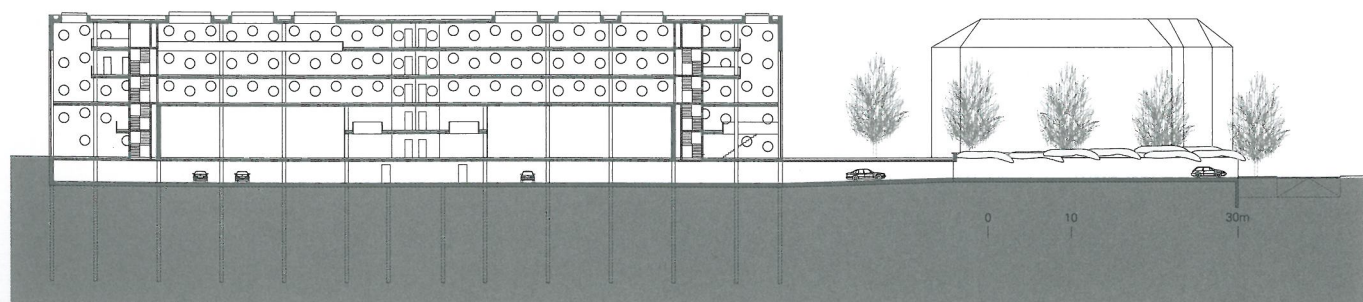
section A-A'



section B-B'



section C-C'



section D-D'

하라데츠 크랄로베의 학술 도서관

체코 보헤미아 지방의 도시, 하라데츠 크랄로베에 새로운 학술도서관이 지어졌다. 부지 북쪽에는 도시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강이 흐르고, 동쪽으로는 체코의 유명한 근대 건축가, 요셉 고차르가 설계한 중학교가 길 하나를 두고 마주한다. 건물은 커다란 X자 형태이다. 외부에는 주재료로 사용한 노출 콘크리트를 그대로 드러내, 견고하고 강인한 느낌이 든다. 이렇듯 간결하지만 동시에 힘 있는 모습은 이 도서관을 더욱 눈에 띄게 한다.

한 건물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네 동에 가깝다. 네 개의 X자 날개 부분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뻗어있기 때문이다. 길과 맞닿은 1층에는 진입부를 크게 열어 두고 여러 방향의 출입구를 내어, 어느 쪽 동으로든 쉽게 들어갈 수 있다. 다른 공간을 거치지 않고도 열람실이 있는 동쪽, 카페가 있는 남쪽, 강을 향해 열려있는 북쪽의 전시관으로도 곧바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열린 공간을 통해 진정한 공공건물을 보여주려 했던 노력이 그대로 드러난다.

내부의 모든 동선은 X자형 건물의 교차점, 중앙홀에서 시작된다. 네 개의 날개 부분에 기능에 따라 실을 나누어 배치해, 이용자들은 홀에서부터 각각 필요한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했다. 동쪽에 있는 두 개의 동에는 총 3개 층에 걸쳐 공용공간을 배치했다. 여기에는 서가, 공동 열람실, 소규모 개인 열람실과 안내 데스크 등이 있는데, 공동 열람실 부분에는 천장에 원형 채광창을 두어 내부에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서쪽에 있는 다른 두 개의 동에는 사무실, 창고 및 회의실 등을 두어 관계자 공간으로 사용한다. 다섯 개의 층을 잇는 계단과 엘리베이터도 중앙홀에 설치했다. 계단 위쪽에는 커다란 원형 채광창을 만들어, 실내에 밝은 빛을 끌어들이고 사람들의 시선도 사로잡는다.

내부 공간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예술과의 결합을 시도했다. 예술가, 그리고 그래픽 디자이너와의 협업을 통해 거대한 벽화 두 개를 그려넣었는데, 이는 단조로운 도서관의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또한, 층별로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등 서로 다른 색을 주 색상으로 선정해서 조금씩 다른 내부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 외에도 나무로 만든 책상과 의자, 아연으로 도금된 책장으로 실내를 꾸미고,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음 패널에도 흰색과 단풍나무 색을 사용해 내부의 안락한 분위기를 더했다.

설계 과정에서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 실내 온도는 냉난방 파이프의 복사열을 이용해서 조절한다. 파이프 안에 물과 부동액을 넣어, 계절에 따라 찬 공기와 더운 공기를 공급하게 하였다. 에너지 절감을 꾀하면서도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프로젝트 아키텍트

